

정부, 쌀수요 발굴·양곡법 외면... 농민탓만 해서야



밥이 진심 밥심이 쌀심

<2> 농민은 죄가 없다

쌀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직·간접생산비가 모두 늘어났지만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면서 소득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쌀값의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소비자물가 안정만 강조할 뿐,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쌀값을 20만원대로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양곡관리법을 두 차례나 거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통계청의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10a(아르)당 87만5000

생산비 증가에도 쌀값 하락 '시름' 정부, 소비 촉진 등 대책 마련해야

원으로 전년 대비 2.4%(2만1000원) 증가했다. 쌀 생산비도 20kg당 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4%(431원) 늘었다.

쌀 생산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 평균 1.8%씩 상승해왔다. 반면, 산지 쌀값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 증가하는데 그쳐 농민들의 10a 당 순수익은 연평균 1.3%씩 감소한 실정이다.

소비도 줄면서 각 지역 농협 창고는 쌀 재고로 가득하다.

영암에서 7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변중업(47)씨는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더니 약속도 안 지키고 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벼농사를 많이 해 남아도는 것이라며 농민 탓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년 남아돈다면서 수십만톤의 쌀을 의무수입하면 서도 뒷집짓듯 고민하는 기색이 없다는 게 농민들 푸념이다. 적정 쌀값을 유지해 농민 소득을 안정시



영암지역 농민 변중업씨가 6일 자신의 논에서 비료를 주고 있다.

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 자료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정부가 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통계 자료들이 현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시

장격려 의무화의 영향분석' 자료에서는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2kg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2kg만 감소했다.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6배 차이가 나는 통계라면 신뢰성에 의심을 줄 수밖에 없고 쌀값 형성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수치가 된다는 것이다.

생산하는 농민 탓만 하지 말고 어떻게 소비량을 늘릴지 고민하고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하는 농민들도 많다. 기계화가 다른 작물보다 잘된 게 문제라면 다른 작물의 자동화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민들이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아침밥 먹기, 가공산업 활성화 등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당장, 이달 수확이 예정된 조생종 햅쌀 출하를 앞두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년도 등이 요구하는 추가 시장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물량도 전년보다 6만 7000t이 많고 전국 쌀 재고도 전년 같은 기간에 걸쳐 23만 6000t이 많다.

김용경 광주·전남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 협의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발표하면서 9만t이 남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 15만t을 사들여 격리해도 유통 물량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부실한 자료로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출렁이는 증시"...미 경제지표 발표까지 변동성 지속 될 듯

폭락장 끝나자 매수세 붐물

코스피 2522.12로 진정세 보여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불렀던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80.60포인트(3.30%) 오른 2522.15로 마감, 폭락 장세는 일단 하루 만에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41.59포인트(6.02%) 오른 732.87로 거래를 마쳤다.

간밤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 반전의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직전월(48.8)보다 2.6포인트 오른 51.4를 기록하며 업황 확장세를 나타냈다. 한달 만에 경기 확장-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회복하면서 시장 예상치(51.4)에도 부합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 역시 개장 직후 65.73까지 치솟으며 패닉 양상을 보였으나, 장중 서비스업 PMI 발표 후 다소 누그러져 전장보다 65% 가까이 오른 38.57을 기록했다.

그러나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반등을 투자심리 회복으로 보기엔 이르며, 본격적인 반등 조건은 시장의 불안을 불식할 만한 미국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내주 발표될 미 소비자물가지수



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1.79포인트(3.76%) 오른 2,533.34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는 17.76p(2.57%) 오른 709.04에 원/달러 환율은 1,370.0원 보합으로 개장했다. /연합뉴스

(CPI) 및 실물경제지표 등이 증시 흐름을 좌우할 단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나아가 이달 22-25일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 28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발표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최악의 경우 코스피가 전장 수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곽병열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PBR 저점은 선행지수상 경기저점과 일치했는데, 이번의 경우 선행지수 상승 중 급락한 '이례적 상황'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및 선행지수 저점 부근의 코스피 PBR 저점은 0.8배였다. 아제 2,441 기준

코스피 PBR이 0.87배까지 후퇴한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2,250 전후에서 저점 테스트 및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2.15 (+80.60)
↑ 코스닥	732.87 (+41.59)
↑ 금리(국고채 3년)	2.935 (+0.129)
↑ 환율(USD)	1376.30 (+1.50)



농협 전남본부 '쌀 소비촉진 통합지원단' 발족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진행

농협 전남본부가 통합지원단을 꾸리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 행보에 들어갔다.

농협전남본부는 6일 '전남농협 쌀 소비촉진 통합지원단'〈사진〉을 발족하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쌀 가공식품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쌀 소비촉진 통합지원단은 농협경제주 전남본부부장을 단장으로 전남농협 각 계열사가 참여

해 전남 쌀 소비촉진을 위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나선다.

통합지원단은 지난 5일 전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첨단농산업 기술 개발 협력 강화

전남도가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농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대동, (사)한국농업기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첨단농산업융합지구 유치를 위한 첨단농산업 육성·기술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동은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파밍, 로봇 등 미래 스마트농업 분야 국내 1위 기업이고 한국농업기계학회는 정부 기관과 대학, 기업 등 600명으로

구성된 농업기계 대표 연구단체다.

전남도 등은 이날 협약에 따라 ▲첨단농산업 기반 구축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농작업 대행 플랫폼 구축 ▲농용로봇 연구개발(R&D)·실증 보급 ▲농업 데이터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 ▲스마트팜·노지농업기계 시스템 공동 연구 ▲인공지능 접단농산업 융합지구 유지 협력 등에 나서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기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